

진정한 대학 자율화의 의미

박 회 중 명지대 전략기획실장

최근 우리 나라 대학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과거 우리 대학은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의 온상지가 되면서 학문적 발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제대로 된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여건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 스스로의 책임도 있지만 변화의 흐름을 읽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양산되는 각종 부작용들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이 객체로 밀려나 진정한 개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진정한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이 자율화되어 있고 정부의 간섭은 거의 없다. 그만큼 대학의 책임이 막중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각자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일정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 오

렌 역사를 자랑하는 우수한 종합사립대학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주립대학도 있다. 주립대학들은 싼 수업료를 무기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특히 주민일 경우 학비를 대폭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 과정 없이 아주 탄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학부생들을 졸업시켜서 다른 대학원 혹은 사회로 배출하는 학부교육 전문의 대학교도 있다. 이들 학교의 교수는 대부분 명문대 출신 박사인데 연구보다는 교육에 특화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능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대학 교수들과 달리 연구실적보다는 교육능력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학자들 중에 연구보다는 교육에 소질과 관심이 많은 교수들은 이러한 대학교의 교원이 되어 평생을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어떨까? 우선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부족하다. 모두들 어딘지 모르게 닮았고 획일적이다. 천편일률적인 조직 체계에 얽매어 있고 더불어 교육부라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일일이 간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과거의 독재정권이 반독재 투쟁의 보루였던 대학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설립만 하면 학생들이 줄을

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한 학기만 지나면 교실이 텅텅비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은 기회만 있으면 보다 나은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편입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속에서 교육부도 최선을 다해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화가 진정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의 다양화 및 차별화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자율화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등록금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물가상승이라는 변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물가상승이라는 변수만을 가지고 대학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제도와 용역의 가격통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금 책정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자율화의 제고를 위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제도도 어느 정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광역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는 광역화하고 또 다른 분야는 계속 학과 단위로 모집하는 등 모집방법에 있어 일종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내지는 고객으로서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면서도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의 조화가 이롭다. 모집단위가 광역화된 이후 학생들이 전공 및 학과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면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쏠림현상이다. 다른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과를 아무 생각없이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소신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여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또는

유망하다는 학과를 그냥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집단쏠림현상으로 인해 대학교육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사회에 나가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응용학문과 실천학문만을 선택할 경우 기초적인 학문 분야는 자리할 틈이 없다. 학부에서는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응용보다는 기초적인 부분을 배워 탄탄한 분석기법으로 무장한 후 대학원 수준에서 이를 토대로 한 응용학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실력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진정한 자율화를 목표를 하는 대학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활발한 교육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자율화 의지와 함께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의 자율화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가진 대학들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교복자율화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학교별로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율인 것과 같이 대학의 모든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열매는 맺어질 것이다. **김원**

박희중

서강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Oregon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Notre Dame대 객원교수, Oregon대 경제학과 강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보험금융연구소 소장, 전국 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장, 명지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고 있다. '국제경제의 지역주의 확산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